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D-9 “우리도 함께 뛰다”

80명 헬륨풍선 들고 질주 “꿈을 응원합니다”

보 해

갑오년 청마의 해를 맞아 지역 대표 주류 기업 보해 임직원들이 제49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에 출사표를 던졌다. 보해 임직원은 지난 64년간 함께 해온 지역민의 꿈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보해가 지역민의 꿈을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헬륨풍선을 제작해 함께 뛰게 된다. 이번 마라톤 대회에는 보해 임직원 및 가족 등을 포함해 약 80여 명이 함께 해 그 어느 해 보다 의미가 깊다.

보해와 함께한 60년은 보해의 소중한 ‘보물’ 좋은 제품 사회봉사로 지역사회 공헌 다짐

이 별 계획이다. 최현준 호남권역 센터장은 “이번 마라톤은 전 임직원이 뜻을 모아 지역민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지만, 청마의 해를 맞아 보해 임직원들이 합동 단결하여 지역민을 향해 끝없는 지역 사회 공헌을 다짐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해는 지난 64년간 진정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의미를 두고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보해덕천장학회의 경우 1981년 설립하여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자아실현에 매진할 수 있도록 2013년까지 30여년 동안 약 3500명에게 총 33억4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왔으며, 환경이 어려운 외식업협회원 자녀 장학금 6억원을, 지역 청소년 선도를 위해 5억 2000만원 등을 지원하



제49회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 ‘지역민의 꿈을 응원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참석하는 보해 임직원들이 완주를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는 등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2006년에는 보해 임직원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젊은이세 사랑나눔기’ 봉사단을 창단해 9년째 광주·목포·순천·전주·서울 등 전국에서 소외된 이웃에게 약 480여회의 나눔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해 ‘젊은이세 사랑나눔기 봉사단’은 2010년 7월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주최한 ‘제17회 전국자원봉사대회’에서 우수상을, 2011년 전국자원봉사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지역 대표봉사단으로 선정돼 전국네트워크를 이용한 체계적인 자원봉사 실적 인증 관리를 하고 있다. 3·1절 마라톤대회 6번째 하프코스에 도전하는 이효수 순천지점장은 1시간45분을 목표로 기록 단축에 도전할 계획이다. 이 지점장은 수차례의 완주경험을 통해 코스에 익숙한 점을 들어 반드시 기록 단축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매년 가족과 함께 3·1절 마라톤 대회에 개근 중인 김형서 정보팀장은 “단순한 마라톤 행사가 아닌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서 3·1절 마라톤대회에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임효섭 회장은 “지속적인 지역 사회공헌을 통해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변화된 트렌드에 맞춰 나눔의 참 의미를 알리는 다양한 나눔 문화행사 등으로 저변을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며 “3·1절 마라톤 출전을 통해 임직원들이 3·1정신을 되새기며 사·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주영 마지막 점검

홍명보호 3월 6일 그리스와 평가전때... 차두리도 깜짝 발탁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이 3월6일(한국시각) 그리스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벤치 워머’ 논란에 빠진 박주영(앳퍼드)을 전격 발탁했다. 박주영이 홍명보 감독 부임 이후 대표팀에 합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명보 감독은 19일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그리스와의 평가전에 나설 24명의 대표선수 명단을 발표하면서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박주영을 포함했다. 박주영이 태극마크를 달고 평가전에 나섰던 것은 2013년 2월6일 영국 런던에서 치러진 크로아티아전이 마지막으로 1년1개월 만에 대표팀 유니폼을 다시 입게 됐다.

더불어 박주영이 대표팀에서 마지막으로 골 맛을 본 것은 2011년 11월 11일 치러진 아랍에미리트(UAE)와의 브라질 월드컵 3차 예선 4차전이였다.

홍 감독은 그동안 소속팀에서 주전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면서 ‘유령 선수’로 전락한 박주영의 발탁 여부를 놓고 고심했지만 대표팀 공격진의 골결정력 부족과 팀마다 부재라는 약재의 해결책으로 결국 ‘박주영 카드’를 꺼냈다.

홍 감독은 박주영의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기존 대표팀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본다는 의미에서 박주영을 그리스 평가전에 부르기로 했다.

박주영과 함께 최전방 공격수로는

그리스 평가전 출전자 명단

3월 6일 오전 2시 그리스 카라이스카티스타디움

Table with 2 columns: Position (FW, MF, DF, GK) and Player Name. Includes names like 박주영, 김신욱,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K리그를 대표하는 김신욱, 이근호, 지동원이 치열한 생존 경쟁을 펼치게 됐다.

수비진에서는 ‘백전노장’ 차두리의 ‘깜짝 발탁’이 눈에 띈다.

차두리는 2011년 11월 레바논과의 브라질 월드컵 3차 예선전에 나선 이후 2년 3개월여 만에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오른쪽 측면 수비수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됐다. 차두리가 홍명보 감독의 호출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감독은 그동안 오른쪽 측면에 이용을 주로 기용했지만 K리그에서 꾸준히 활약하고 월드컵도 경험한 차두리를 활용 경쟁을 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광주시선수단 “금메달 따고 오겠습니다”

전국동계체전 결단식

5개 종목 118명 출전

‘겨울 스포츠의 꽃’ 전국동계체전에 출전하는 광주시선수단이 19일 결단식을 가졌다. <사진> 광주시체육회는 이날 광주시 서구

염주종합체육관 중회의실에서 제9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광주시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선수단은 스키, 빙상, 컬링,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등 5개 종목에 선수 118명 등 총 14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26일부터 3월1일까지 강원과 서울 등에서 열리는 전국동계

체전에서 열전을 펼친다. 이번 대회에서 광주시체육회는 스키 스노보드 여자 일반부 김예나(주주나이스) 선수가 스노보드 사상 첫 금메달을 노린다. 또 아이스하키 초동부팀이 첫 출전을 한다. 김홍식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두번 넘어

저도 오뚜기처럼 일어나 동메달을 획득한 박승희 선수처럼 성적이 연연하지 않고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최대한 발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는 지난해 동계체전에서 10위를 차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19일 광주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9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결단식에서 광주시선수단이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D-9 “우리도 함께 뛰다”

광주광역시 선수단 결단식

광주광역시 체육회

광주광역시 체육회

광주광역시 체육회

광주광역시 체육회

분할 합병 공고

MOVIE HOLIC advertisement for Lotte Cinema and Megabox theaters, listing movies like 'The Man from Nowhere' and 'The Man on the Roof'.